

#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 The Effects of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Child Rearing Attitudes on Social Competence

천 회 영\*\*  
Chun, Hui You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child rearing attitude on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The subjects were 256 children(4- to 6-year-olds) who participated in Chun's substudy 1 (1992). Cluster analysis and two-way ANOVA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instruments were the Temperament Rating Scale, Mother's Child Rearing Attitude Scale, and Kohn's Social Competence Scale.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social competence differences by temperament and child rearing attitudes. Interaction effects were found for boys in the 4- and 5-year-old groups. The main implications were confirmation of the validity of the "goodness of fit" concept and of the typology of Korean childrens' temperament.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의 발달에 대한 연구의 관심이 아동의 개인차와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영역으로 확대됨으로써 다학문적 접근에 의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Campos, Barret, Lamb, Goldsmith, & Stenberg, 1983; Goldsmith & Gottesman, 1981; Plomin, 1986, 1987). 그리고 지금까지의 아동발달을 보는 시각은 환경에 대해 아동이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치중되어 왔으나 아동 역시 자신의 발달을 주도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즉 아동의 기질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성숙과 경험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며 또한 이후의 발달에 있어 토대가 된다는 발달맥락적 입장에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Lerner, 1986; Lerner & Busch-Rossnagel, 1981). 이와 같은 연구의 경향과 McCall(1990)이 인간의 개인차에 있어 주요 연구영역으로서 기질을 다루어야 한다는 지적을 함께 고려할 때 기질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발달맥락적 조망에서 Lerner(1986)는 유기체의 발달을 위한 기질적 개별성의 중요

\* 본 연구는 1993학년도 고신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 고신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성은 맥락과의 관계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Darwin(1982)에 이어 Schneirla(1957)의 순환적 기능(circular function)의 개념에서 구체화된 것이다. 즉 한 개인은 자신이 갖는 개인적 특성의 결과로 타인에 대해 독특한 반응을 보이게 되고 이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 그에게 귀환(feedback)되어 그의 개성과 독특성을 증진시키는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은 Thomas와 Chess(1977)가 제시했던 기질과 맥락의 관계에 대한 조화의 적절성(Goodness of fit)개념과 상통하는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유아기와 아동기에서의 기질은 각 개인이 가진 여러 행동특성들의 조합이므로 기질 특성과 환경적 맥락간의 조화의 적절성 수준이 이후의 발달과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아동의 기질적 개별성과 발달적 적응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개인적 기질 요인과 맥락 요인 그리고 조화의 적절성과 같은 그들의 관계 개념이라는 세 요소 모두를 다룰 필요가 있다(Belsky, Lerner & Spanier, 1984; Hooker, Nesselroade, J. R. Nesselroade & Lerner, 1977; Lerner, 1986).

덧붙여 조화의 적절성 개념에 기초한 기존의 일부 연구는 적응의 결과에 대해 적절성의 수준보다는 오히려 개별속성 혹은 맥락속성과 같은 단일요인의 설명력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 한 바 있으며 이는 연구방법적 문제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Lerner, 1984; Windle, Hooker, Lerner, East & J. V. Lerner, 1986; 김정민, 1992). 이와 같은 비일관적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조화의 적절성 개념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

겠다.

한편 아동의 성격과 사회성 발달에서 가족 맥락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중요하며 기질 연구의 분야에서도 기질과 맥락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실체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Belsky et al., 1984; Belsky, Robins, Gamble, 1984; Buss & Plomin, 1975; Carey, 1986; McCall, 1990; Pettit & Bates, 1989; Priors, Sanson, Carroll, & Oberklaid, 1989; Thomas & Chess, 1977; 정은숙, 1984; 천희영, 1992). 따라서 기질과 맥락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주요 맥락변인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의 기질 특성과 맥락적 적응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아동의 적응 변인으로 행동문제를 선정하여 연구하였다(Bates, 1987; Cameron, 1978; Carey, 1986; Pettit & Bates, 1989; Sanson, Prior, Kyrois, 1990; Thomas & Chess, 1977; 최영희, 1990). 그러나 이들 연구는 기질과 행동문제의 평정치가 일치하거나 문항의 내용이 중복된다는 점에서 비판된다(Bates, 1990; J. V. Lerner, 1983; Sanson et al., 1990). 이와 관련하여 Goldsmith와 Reiser-Danner 그리고 Briggs(1991)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아동의 행동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촉진하며 환경과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보고, 기질과 적응의 관계 연구에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 변인은 이미 기질과 적응의 관계에 대한 소수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연구마다 적용되었던 사회적 능력의 개념이 달랐었다(J. V. Lerner,

1983; Lerner & Galambos, 1988; Palermo, 1982; 김정민, 1992). 또한 Carey(1986)는 기질에 영향받는 사회적 능력의 상대적 개념으로 행동문제, 낮은 자존감, 우울 등을 상정함으로써 사회적 능력의 임상적 측면을 강조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격 특성으로서의 기질을 고려한다면 기질과 관련한 연구에서 다루어질 사회적 능력의 개념은 성격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방법(O'Malley, 1977)에 따라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기질과 맥락 그리고 두 변인의 관계에 따른 적응을 연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선행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정민(1992)은 청소년기에 있어 조화의 적절성이 사회적 능력감, 사회적 관계의 지각, 그리고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어머니의 자녀 기질에 대한 요구외의 다른 요인이 적응에 영향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측정도구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능력감을 알기 위해 사회적 자기존중감을 측정함으로써 White(1959)의 동기적 입장에서 사회적 능력을 개념화했다고 볼 수 있다. 정은숙(1984)은 아동에서의 기질과 양육태도 그리고 인기도의 관계를 연구하되 기질의 차원과 양육태도의 차원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그러므로 기질의 유형이나 양육태도의 포괄적인 유형을 다루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최영희(1990)의 연구는 유아의 기질에 따른 적응변인으로 문제행동을 조사함으로써 앞서 지적했던 적응변인의 선정에 관한 문제점을 가지며 발달과정에서의 맥락변인으로 보았던 문제해결 상황에

서의 어머니의 지도방식이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을 반영하는 정도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천희영(1992, 1993)은 우리나라 아동의 독특한 기질 유형들을 발견하고 기질유형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간의 관계 그리고 기질 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각각 연구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기질과 적응 결과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 변인이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논의되어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적응능력의 발달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측면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만 4세에서 6세의 아동에 있어서 아동의 기질 유형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조사함으로써 조화의 적절성 개념과 우리나라 아동의 기질 유형화가 타당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아동의 발달적 적응을 돕기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기질 유형에 따라 사회적 능력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아동의 기질 유형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기질의 개념과 유형

기질에 대한 개념적 접근은 가장 전통적인 접근법인 성격심리학적 접근(Sheldon, 1942; Cattell, 1950; Diamond, 1957; Allport, 1961; Buss & Plomin, 1975), 정서로서의 기질을 강조하는 개인차 연구 분야에서의 접근(Rothbart & Derryberry, 1981), 그리고 아동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개별적 접근(Thomas & Chess, 1977) 등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Buss & Plomin, 1986).

개별적 접근법을 대표하는 Thomas와 Chess (1977)는 출생초기에 나타나는 구성적인 행동 경향으로서의 기질을 강조하고 그의 동료들과 함께 뉴욕 종단적 연구(New York Longitudinal Study: NYLS)를 통해 기질을 구성하는 9개 차원을 발견하였다(Thomas, Chess, Birch, Hertzog & Korn, 1963). 그리고 그 중 5개 차원에 기초하여 순한 아동, 까다로운 아동, 느린 아동 등 세가지로 기질의 유형을 나누었다.

그러나 천희영(1991)은 이러한 기질의 유형화 방법을 우리나라 아동의 기질을 유형화 하는데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학령전기와 학령기 초기 아동의 기질을 구성하는 5개의 기질차원 즉 활동성, 반응성, 정서성, 적응성, 생리적 규칙성의 차원을 발견하고 이 5개 모두로써 아동의 기질을 유형화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절반정도(52%)는 '조절형'의 유형에 속하며, 이 유형의 특성은 적응력이 높고 덜 활동적이며, 생리적으로는

규칙적이며 기분의 상태가 긍정적이지만 민감하고 강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유형은 NYLS에서의 순한 아동과 유사하게 발달과정에서의 적응력이 높은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었다. '조절 결합형'은 34%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며 조절형과 대조적인 특성을 보였다. 즉 적응력이 낮고 활동적이며, 생리적으로는 불규칙적이며 예민하고 강한 반응을 보이되 기분의 상태가 부정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질 유형의 아동은 발달과정에서의 전반적인 적응력이 낮은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NYLS에서의 까다로운 아동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었다. 소수의 아동(14%)은 '소극적 조절형'으로 분류되었는데 정서성은 조절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적응성과 활동성은 낮은 편이고 생리적으로 불규칙적이며 반응의 민감도와 강도가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그러므로 이 기질 유형은 NYLS에서의 느린 기질과도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 아동에서의 독특한 기질 유형이라고 볼 수 있었으며 전반적인 발달적 적응력은 조절형과 조절 결합형의 중간정도로 예측되었다. 덧붙여 이러한 기질의 유형별 특징과 구성 비율이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없이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기질 유형화의 타당성을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천희영, 1992).

### 2. 기질과 맥락의 상호작용

발달적 변화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은 발달 연구분야에서의 기본적인 논쟁점으로 다루어져 왔다(Lerner, 1986). 그러나 기질에 대한 연구분야에서는 아동의 타고난 바와 환

경 모두가 발달에 기여한다는 유기체 상호작용적 입장이 지배적이다.

Buss와 Plomin(1975)은 기질과 성격의 형성에 관련하여, 기질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호작용 기질 모델'을 주장했다. Lerner(1986, 1990)는 유기체의 특성이 갖는 의미는 그 특성과 맥락의 관계에 따라 설명될 수 있으며 맥락의 요구와 압력 또한 개인의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이해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기질과 맥락간의 관계는 기질에 대한 개별적 접근에서 비롯되며 발달맥락적 조망에서 널리 다루어지는 조화의 적절성 개념에 기초하여 이해될 수 있다(Lerner, 1984; Lerner et al., 1986). 조화의 적절성이란 어느 연령이든지 환경의 요구가 개인의 능력·동기·기질과 적절히 조화가 되면 바람직한 심리사회적 기능의 발달이 가능하지만 부적절하게 조화(poorness of fit)가 되면 적응력이 낮아진다는 것이다(Thomas & Chess, 1977). 개별적 접근에 의하면 아동이 생후 초기부터 보이는 상이한 기질 특성에 의해 같은 환경적 영향에도 달리 반응하게 되며 이에 대한 타인의 귀환반응, 그리고 귀환반응에 대한 아동의 반응으로 이어지는 순환적인 반응과정에서의 조화가 개인의 적응과 건강한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Lerner, 1986).

그러므로 발달 연구에서 기질의 기능적 중요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질적 개별성과 맥락 각각의 특성뿐만 아니라 맥락과의 관계적 성격을 이해하는 조화의 적절성 개념에 기초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 3. 선행연구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 그리고 조화의 적절성 개념에 기초한 선행 연구의 순서로 살펴보기로 한다.

단순히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로는 Lamb, Hwang, Brookstein, Broberg, Hult, 그리고 Flodi(1988)의 연구와 천희영(199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Lamb과 그의 동료들(1988)은 2년 4개월된 유아를 대상으로 아동의 성격, 동료관계의 기술 및 행동, 그리고 사회성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능력의 결정요인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기질이 성격면에서의 성숙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료와의 사회적 통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 그러나 만 4세와 5세 아동을 대상으로한 천희영(1993)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기질 유형에 따라 사회적 능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능력의 총점과 사회적 관심 및 참여라고 명명된 하위차원에서 조절형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가장 높게, 그리고 소극적 조절형과 조절 결함형의 순서로 사회적 능력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의한 어머니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밀접히 관련된다는 연구들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동료관계의 형성과 문제행동 측면에서 다루고 있었다.

초기 아동기의 사회·정서적 능력이 부모와 유아간의 관계의 질로써 예측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애착이론에 기초하여 연구된 외에도 유기체 관점(organizational perspective)에서도

다루어져왔다(Denham, Renwick, & Holt, 1991). Hartup(1989)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민감성이 아동의 사회적·인지적 발달을 유도한다고 하였으며 Walters와 Sroufe(1983)는 부모와 자녀간의 초기 관계가 학령전기 동안의 동료관계 형성을 위한 발달적 전환에 대비하도록 한다고 보았다. Denham과 그의 동료들(1991)은 2세에서 4세 아동의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관찰하고 어머니의 부적절한 상호작용 방식, 예를 들면 자녀에 대한 지나 자율성의 허용 정도가 낮을 경우에 자녀가 동료와 상호작용 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Pettit와 Bates(1989)는 4세 아동과 그들 어머니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초기의 강압적(coercion) 관계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부재가 아동에서의 부적응적인 사회행동을 더 잘 예언한다고 하였다.

한편 기질과 맥락변인 그리고 적응 변인의 관계를 조화의 적절성 개념에 기초하여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는 Thomas와 Chess(1977)를 중심으로 행해진 NYLS이다. 그들은 아동의 수면 규칙성과 어머니 양육태도라는 맥락간의 관계를 알고자 NYLS 대상아동과 미국의 푸에르토리코인 아동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 전자의 경우 부모는 자녀의 수면규칙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자녀의 행동을 부적응적인 것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후자의 경우는 요구가 낮아서 학령전기에는 문제가 없으나 학교에 들어가서는 수면 불규칙성에 의한 부적응을 보이게 됨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한 자녀에의 요구와 자녀의 기질 특성이 조화된다면 아동

의 적응에는 문제가 없으나 조화가 안되면 부적응적인 행동을 발달시키게 됨을 보여 주었다.

만 3세에서 6세 아동을 대상으로 기질의 하위차원들과 어머니 양육태도 및 인기도간의 관계를 알고자 했던 정은숙(1984)은 인기도의 상·하 집단간 비교에서 두 집단 모두 까다로운 기질과 관련된 차원이 인기도와 부적의 관계를 보이는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나 양육태도와 인기도의 관계는 서로 반대 양상으로 나타나 아동의 적응을 위해서는 아동의 기질에 따라 양육태도를 다르게 가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었다.

이와는 달리 맥락변인을 의미있는 타자의 요구로 하여 적응 결과를 보려는 연구도 발전할 수 있었다. J. V. Lerner(1977)는 DOTS 개정판으로써 8학년 아동의 기질 및 교사와 동료 집단의 교실내 행동양식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아동의 적응과 능력·동료관계·자존감 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동료 및 교사의 요구와 기질이 조화되면 적응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 5학년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의 기질 및 교사와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행동양식 요구를 조사한 Palermo(1982)는 기질과 요구의 조화정도에 따른 교실에서의 적응능력, 사회성, 가정에서의 문제행동 등을 평가하였다. Palermo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회적 능력은 아동의 기질과 요구간의 조화점수에 의해 가장 잘 예언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구와 기질 측정치의 차이가 적을수록 더 나은 적응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Windle과 그의 동료들(1986)은 6학년 아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사·동료 혹은

부모의 바람직한 기질 특성에의 요구와 기질 간의 관계에 따라 심리사회적 기능 즉 사회적 능력을 포함하는 지각된 능력과 우울증에 차이가 있는지 알기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단일 요인으로서의 기질에 비해 기질과 맥락요구의 상호작용 변량이 심리사회적 기능의 변량을 의미있게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김정민(1992)은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기질과 기질에 대한 부모의 요구간의 차이점수를 조화의 적절성 점수로 하여 적절성이 사회적 능력감, 사회적 관계의 지각, 그리고 우울증상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을 경로분석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두 연구의 결과가 비일관적으로 나타난 것은 조화의 적절성 모델의 검증방법 차이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분석방법의 적용이 요청된다고 하겠다(Lerner et al., 1986).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 아동은 천희영(1992)의 연구 I에 참여했던 만 4세, 5세, 6세의 아동 중에서 무선적으로 표집된 256명<sup>1)</sup>이었다. 대상아동의 연령별·성별 구성은 <표 1>에 제

시된 바와 같다.

<표 1> 연령별·성별 연구대상 아동의 구성

성	연 령			전체
	4	5	6	
남	48(33.6)*	61(42.7)	34(23.8)	143(55.9)
여	33(29.2)	57(50.4)	23(20.4)	113(44.1)

\* ( ) 안은 백분률

#### 2. 연구도구

아동의 기질<sup>2)</sup>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연구용 기질 평정척도(천희영, 1991)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용 기질 평정척도는 만 3세에서 7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용 가능하며 적응성, 활동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 정서성 등 5개 차원의 33개 문항으로 구성된 것이다. 응답자는 아동의 어머니이며 문항에 대한 반응양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의 4점으로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내적 합치도 계수  $\alpha$ 값은 차원에 따라 .65에서 .83이었다.

아동의 적응정도를 반영하는 사회적 능력은 타당화 과정을 거친 Kohn의 사회적 능력 척도(Kohn's Social Competence Scale)(천희영, 1993)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능력척도를 선택한 이유는 이 척도에서 채택한 사회적 능력의 개념이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능력의 정의<sup>3)</sup>에

- 1) 무응답이 있는 자료에 의해 변인마다 대상자 수가 다를 수 있음.
- 2) 본 연구에서의 기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질은 심리생물학적 특질을 외현적으로 반영하는 반응양식 및 그 반응양식을 스스로 조절하는 형태에서의 개인차이다(천희영, 1992).
- 3)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능력은 Krasnor와 Rubin(1983), O'Malley(1977)의 정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대인관계에서의 동료 또는 성인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상응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능력 척도는 만 3세에서 7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 가능하며 사회적 관심과 참여, 사회적 협동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Likert식 5점 척도의 39개 문항에 대한 반응자는 교사였다. 신뢰도를 대변하는  $\alpha$ 값은 차원별로 .97과 .89였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1992년 9월 천희영(1992)의 연구 1에 참여했던 만 4세, 5세, 6세의 아동 중 무선적으로 300명을 선정하여 실시되었다.

아동의 기질 유형은 1992년 7월의 선행연구에서 이미 조사되었으므로 아동의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양육태도 척도를 우송했으며, 담임교사에게는 사회적 평정척도를 배부하고 응답토록 하였다.

256부가 회수되었으나 6세 아동에서의 회수율이 71%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 4. 자료의 분석

먼저 이미 조사된 아동의 기질 유형외에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을 알기 위해 최적분리 방법에 의한 군집분석을 하였다. 연구문제 1과 2는 물론 조화의 적절성 개념에 기초하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항을 이용하는 변량분석 방법(Lerner et al., 1986)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기질의 유형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변량분석의 가정을 검토하였다. 분포의 정상성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Kolmogorov-Smirnov 검증을, 모집단의 동변

량성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Bartlett-Box 검증을 하였다. 사회적 능력의 두 차원 즉 사회적 관심과 참여, 사회적 협동 차원과 총점 각각에 대한 K-S의 Z가 4.14, 2.94, 2.87로 모두 .001 수준에서 분포의 정상성 가정이 만족됨을 알 수 있었다. Bartlett-Box의 F는 .37, .39, 1.10이었으며 그 확률이 .95~.96으로 나타나 동변량성 가정 또한 만족된다고 볼 수 있었다. 이에 기질 유형과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사회적 능력 척도의 차원별 점수와 총점 각각에 대해 이원변량분석을 하되 두 독립변인에 의해 교차분할된 칸의 사례수가 다른 불균형 설계이므로 단계적 접근 모형으로써 자승화를 분해하였다(고홍화·김병선, 1992). 사후검증으로는 Scheffé 검증을 하였다. SPSS/PC+ 프로그램으로 모든 통계처리가 이루어졌다.

## IV. 결 과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서의 연령 차이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 능력의 하위 두 차원과 전체 사회적 능력 모두에서 4세·5세 집단과 6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령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4세와 5세 집단의 자료를 통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을 군집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천희영(199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즉 양육태도의 차원별 표준화된 점수 분포에서 애정성 차원 .60, 통제성 차원 -.65를 군집의 중심으로 하는 온정적 양육 유형과 애정적 차원 -.37, 통제성 차원



.55를 군집의 중심으로 하는 통제적 양육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과 아동의 기질 유형에 따른 대상 아동 256명의 구성을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먼저 4세와 5세 집단의 기질 유형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능력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회적 능력의 하위 두 차원과 전체적인 사회적 능력별로 산출한 결

과는 <표 3>과 같다.

<표 2> 대상 아동의 기질 유형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별 구성

양육태도 유형	기질유형		
	조절형	소극적조절형	조절결함형
온정적 양육유형	76	10	20
통제적 양육유형	80	20	50
전체	156	30	70

<표 3> 4세·5세 집단의 기질 유형과 양육태도 유형별 사회적 능력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회적 능력 차원	기질유형	양육태도 유형					
		온정적 유형			통제적 유형		
		M	SD	n	M	SD	n
사회적 관심과 참여	조절형	99.02	15.46	51	95.27	14.01	55
	소극적 조절형	97.25	17.03	4	94.10	13.16	10
	조절 결함형	92.06	14.15	17	88.31	14.31	36
사회적 협동	조절형	44.36	6.21	55	43.98	4.93	55
	소극적 조절형	39.25	7.14	4	44.90	4.23	10
	조절 결함형	45.06	5.98	18	41.16	6.06	38
사회적 능력 전체	조절형	143.57	19.20	51	138.74	15.38	54
	소극적 조절형	136.50	20.02	4	139.00	14.82	10
	조절 결함형	137.71	14.82	17	129.39	14.68	36

<표 4> 4세·5세 집단의 기질 유형과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능력점수의 이원변량 분석표

사회적 능력 차원	변량원	SS	df	MS	F
사회적 관심과 참여	기질 유형	1882.26	2	941.13	4.51*
	양육 유형	670.46	1	670.46	3.21
	기질×유형	4.93	2	2.47	0.01
	오차	34678.04	166	208.90	
	전체	37235.69	171	217.75	
사회적 협동	기질 유형	107.46	2	53.73	1.59
	양육 유형	62.69	1	62.69	1.85
	기질×유형	276.40	2	138.20	4.08*
	오차	5621.89	166	33.87	
	전체	6068.44	171	35.49	
사회적 능력 전체	기질 유형	2872.10	2	1436.05	5.14**
	양육 유형	1143.17	1	1143.17	4.10*
	기질×유형	284.78	2	142.39	0.51
	오차	46339.97	166	279.16	
	전체	50640.02	171	296.14	

\*p<.05 \*\*p<.01

〈표 3〉에 기초하여 이원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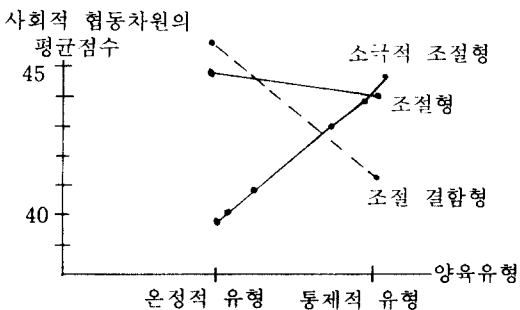
〈표 4〉에서 보면 4세와 5세 집단의 경우 사회적 관심과 참여 차원에서 기질 유형의 주효과가 나타나 사회적 관심과 참여 능력은 기질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절형의 점수가 가장 높고 소극적 조절형, 조절 결합형의 순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표 5〉에서 보듯이 사후검증 결과, 조절형과 조절 결합형 간의 능력점수 차이가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표 5〉 4세·5세 집단의 기질 유형별 사회적 능력점수간의 Scheffé검증 결과

분석대상	기질유형	기질유형		
		조절형	소극적조절형	조절결합형
전 체	조절형			*
	소극적조절형			**
	조절결합형			
여 아	조절형			*
	소극적조절형			
	조절결합형			

\* 사회적 관심과 참여의 차원

\*\* 사회적 능력 전체



〈그림 1〉 4세·5세 집단의 사회적 협동 차원에서의 기질 유형과 양육유형의 상호작용효과

사회적 협동 차원에서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표 3〉의 점수로써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기질 유형과 양육유형의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조절 결합형의 아동은 온정적 양육유형에서는 사회적 협동점수가 가장 높지만 통제적 유형에서는 가장 낮으며, 소극적 조절형의 아동은 온정적 유형에서는 최저의 점수를 보이지만 통제적 유형에서는 최고의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조절형의 경우는 온정적 유형에 비해 통제적 유형에서 약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의 사회적 능력 전체 점수를 보면 기질 유형과 어머니의 양육유형 각각의 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절형의 사회적 능력 총점이 가장 높고 조절 결합형이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사후검증 결과 〈표 5〉와 같이 이 두 유형에서의 차이가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양육유형의 효과와 관련하여 통제적 유형보다는 온정적 유형에서의 사회적 능력의 총점이 높다고 볼 수 있었다.

추가로 아동의 성별로 기질 유형과 양육 유형에 따라 사회적 능력 점수를 이원변량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남아의 경우 사회적 협동 점수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6.09, p<.01$ ), 평균에 의한 도식결과는 〈그림 1〉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여아에서는 사회적 관심과 참여 차원에 대한 기질 유형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조절형( $M=100.67$ ), 소극적 조절형( $M=98.87$ ), 조절 결합형( $M=88.64$ )의 순서로 점수가 높다고 볼 수 있었으

며 조절형과 조절 결합형간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후검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4세와 5세 집단의 사회적 능력점수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기질의 유형에

따라 사회적 관심과 참여 및 전체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있으며 양육유형에 따라서는 전체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세와 5세 전체 아동 및 동일집단내 남아의 경우에 사회적 협동 능력이 기질 유형과

<표 6> 6세 집단의 기질 유형과 양육태도 유형별 사회적 능력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회적 능력 차 원	기질유형	양육태도 유형					
		온정적 유형			통제적 유형		
		M	SD	n	M	SD	n
사회적 관심과 참여	조절형	106.41	10.72	17	101.61	13.11	23
	소극적 조절형	104.00	0.00	1	95.50	4.93	4
	조절 결합형	80.00	0.00	1	94.29	10.59	7
사회적 협동	조절형	44.50	5.09	18	40.86	5.95	22
	소극적 조절형	39.00	0.00	1	42.00	4.08	4
	조절 결합형	52.00	0.00	1	42.13	4.82	8
사회적 능력 전체	조절형	150.53	13.94	17	142.86	16.04	22
	소극적 조절형	143.00	0.00	1	137.50	2.89	4
	조절 결합형	132.00	0.00	1	136.29	12.05	7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의 상호작용에 의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세 집단에서의 기질 유형과 어머니의 양육

태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능력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6>에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이원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6세 집단의 기질 유형과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능력점수의 이원변량 분석표

사회적 능력 차 원	변량원	SS	df	MS	F
사회적 관심과 참여	기 질 유 형	969.41	2	484.71	3.54*
	양 육 유 형	118.97	1	118.97	0.87
	기질×유형	304.06	2	152.03	1.11
	오 차	6292.55	46	136.79	
	전 체	7684.98	51	150.69	
사회적 협동	기 질 유 형	11.17	2	5.59	0.19
	양 육 유 형	125.20	1	125.20	4.27*
	기질×유형	71.04	2	35.52	1.21
	오 차	1350.36	46	29.36	
	전 체	1557.77	51	30.54	
사회적 능력 전체	기 질 유 형	879.00	2	439.50	2.15
	양 육 유 형	488.26	1	488.26	2.39
	기질×유형	115.54	2	57.77	0.28
	오 차	9409.26	46	204.55	
	전 체	10892.06	51	213.57	

\*p<.05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6세 집단의 사회적 관심과 참여 차원에서의 평균점수는 기질 유형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조절형, 소극적 조절형, 조절 결합형의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다고 볼 수 있었으며 〈표 8〉과 같이 사후검증으로 조절형과 조절 결합형간의 점수 차이가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사회적 협동 차원에서는 양육 유형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온정적 양육 유형의 아동이 통제적 양육유형의 아동보다 높은 사회적 협동 차원의 점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표 8〉 6세 집단의 기질 유형별 사회적 능력 점수간의 Scheffé검증 결과

분석대상	기질유형	기질유형		
		조절형	소극적조절형	조절결합형
전 체	조절형			*
	소극적조절형			
	조절결합형			
남 아	조절형	*		*
	소극적조절형	**		**
	조절결합형			

\* 사회적 관심과 참여의 차원

\*\* 사회적 능력 전체

성에 따라 분리하여 이원변량분석한 결과 여아에서는 독립변인에 의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아에서는 사회적 관심과 참여의 차원, 사회적 능력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기질 유형의 주효과가 발견되었다(사회적 관심과 참여의  $F=7.40, p<.05$ ; 사회적 능력 전체의  $F=5.96, p<.01$ ). 조절형, 소극적 조절형, 조절 결합형의 순서로 평균점수를 살펴

보면, 사회적 관심과 참여 차원의 경우 105.83, 97.20, 85.67이었으며 사회적 능력 전체의 경우 148.22, 138.60, 125.33이었는데 이에 두 차원 모두에서 조절형 점수가 가장 높으며 조절 결합형의 점수가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절형과 소극적 조절형, 조절형과 조절 결합형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사후검증으로 알 수 있었다.

6세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6세 아동 전체와 남아의 경우 아동의 기질 유형에 따라 사회적 관심과 참여의 차원에서 점수 차이가 있었으며, 남아의 경우에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서 사회적 협동의 차원 점수에서 차이가 있었다.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는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4세·5세와 6세의 두 연령집단 그리고 각 집단내에서 아동의 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질 유형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연령집단 모두에서 조절형, 소극적 조절형 그리고 조절 결합형의 기질 유형에 따라 순서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다는 것과 사회적 관심과 참여 능력은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이나 상호작용의 영향에 의해서

라기 보다 기질 유형에 의해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자의 결과는 각 기질 유형에 유사한 NYLS의 순한 기질 혹은 까다로운 기질과 같은 기질 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 능력을 연구했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천희영(1992)의 연구에서 아동의 기질 유형에 따른 발달적 적응의 정도가 예언된 바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후자의 결과는 먼저 기질 유형을 구성하는 하위차원과 사회적 능력 점수간의 관계를 살펴본 천희영(1992, 1993)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관심과 참여의 차원은 기질의 하위차원 중 반응성, 적응성, 생리적 규칙성의 세 차원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이 중에서 사회적 협동의 차원과 공통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차원인 반응성 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두 기질 하위차원은 세가지 기질 유형간에 유의한 차이를 가진다고 보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이 두 기질 하위차원의 특성에 의해 사회적 관심과 참여 능력에서의 차이가 결과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을 하면, 개인내 기질 특성의 영향정도가 사회적 능력의 차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능력 척도의 차원별 문항내용을 보면 사회적 관심과 참여의 차원은 아동 자신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참여하는데 관련되며 반면 사회적 협동 차원은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협조하는 소극적 태도에 관련된다. 그러므로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사회적 관계에서 아동

이 갖는 적극적인 태도의 형성에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사회적 협동 차원과 같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맥락요인인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이나 기질과 양육유형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도 지지된다고 하겠다.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간의 상호작용은 4세·5세 집단 전체 및 이 집단 내 남아의 사회적 협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 경우의 상호작용 형태가 거의 유사하므로 4세와 5세 집단 전체의 경우 살펴보면, 조절형의 아동은 온정적 양육유형에 비해 통제적 양육유형에서 약간 능력이 낮게 나타나지만 양육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소극적 조절형의 아동은 온정적 양육유형에서는 능력이 세 기질 유형 중 가장 낮지만 통제적 양육유형에서는 오히려 가장 높게 나타나며 반대로 조절 결합형의 아동은 온정적 양육유형에서는 가장 능력이 높지만 통제적 양육유형에서는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절형의 아동은 다른 기질 유형의 아동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높은 사회적 능력을 갖게 되지만 나머지 두 기질 유형의 아동은 각 기질 유형에 상응하는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사회적 능력의 발달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본 연구의 대상 아동들 기질 유형과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한 <표 2>와 천희영(1992)의 연구결과를 참고하면, 소극적 조절형과 조절 결합형 아동의 경우 온정적 양육유형 보다는 통제적 양육유형과 짝지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

므로 세 기질 유형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조절 결합형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가장 낮게, 소극적 조절형의 아동은 오히려 중간 수준의 평균점수를 보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 주목되는 것은 소극적 조절형과 조절 결합형 아동간에 기질과 양육태도의 상호작용이 반대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조절 결합형의 아동은 아동의 기질 유형과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의 기질 특성에 의해 어머니로 하여금 통제적 양육유형을 갖도록 한다는 추론(천희영, 1992)에 근거하면, 덜 애정적이고 통제성이 강한 통제적 양육유형에 의해 어머니의 자녀 기질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적응적인 발달이 일어날 가능성 또한 높아져 결국 사회적 협동능력이 낮아지게 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덜 통제적인 온정적 양육태도로써 자녀의 자기조절이 어려운 기질 특성을 수용하며 기질에 대한 요구도 낮게 가지게 되면 아동의 발달 적응력의 감소 정도를 오히려 줄일 수 있으므로 높은 사회적 협동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온정적 유형이 부적응적인 발달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면 소극적 조절형의 아동에서는 조절형의 아동과 같은 형태로 기질과 양육태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야 할 것이나 차이가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사회적 협동 능력과 관계되는 기질의 하위차원을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협동 능력은 기질의 하위차원 중 활동성과 반응성 두 차원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며 또 이 두 차원에서 소극적 조절형은 조절 결합형과

가장 대조적인 특성을 갖는다(천희영, 1992, 1993). 그러므로 조절 결합형의 아동과는 다른 관계를 보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관심과 참여보다 사회적 협동 능력이 아동의 비교적 소극적인 사회적 태도를 반영한다면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위한 사회적인 표현반응과 관련된 활동성과 반응성은 온정적 양육 유형보다 통제적 양육유형에 의해 더 자극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기질 유형과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간의 관계의 조화 적절성을 결과변인의 사회적 능력에 비추어 고려해 보면 조절형, 그리고 특히 조절결합형과 조화를 이루는 양육태도는 온정적 양육유형이며 소극적 조절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통제적 양육유형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사회적 협동 차원에 제한된 결과이긴 하지만 기질과 양육태도의 조화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아동의 적응을 위해 조화의 적절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Thomas와 Chess(1977)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이 입장과 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질과 양육태도 맥락의 관계를 통해 아동의 적응을 살펴봄으로써 조화의 적절성 개념의 타당성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기질 유형화가 타당함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조화의 적절성 개념에 기초하여 아동의 발달을 돕는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이미 많은 발달 심리학자나 정신치료자들이 아동과 환경간의 역동적인 과정을 분석하는데 이 개념을 적용하고 있듯이(Lerner, 1984) 아동의 사회적 적

응 능력을 기르는데 있어 도움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서 6세 집단이 아닌 4세와 5세 집단에서, 그리고 그 집단의 남아 집단에서 개인적 특성과 맥락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밝혀진 것은 효율적인 발달과 교육을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과 조화되는 맥락의 준비가 학령전기 이전에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학령전기의 소극적 조절형 기질을 가진 남아는 사회적 적응을 위해 통제적 양육태도에 의한 활동성과 반응성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아동의 성유형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령별, 기질 유형별, 양육태도 유형별 연구대상 아동의 수가 다르며 특히 분석에 따라 소수의 사례를 대상으로함으로써 분석결과가 편파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조화의 적절성 개념에 기초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계적인 상호작용항을 이용하는 것이 행동적 상호작용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는 것(Windle et al., 1986) 등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을 위해 개인적 기질 특성과 발달의 맥락이 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각각이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두 변인간의 관계 특징에 따라 영향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조화의 적절성 개념은 물론 우리나라 아동의 기질 유형화가 타당함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는 데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조화의 적절성 개념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

증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즉 종단적 연구 혹은 다양한 연령집단을 대상으로한 횡단연구를 통해 연령별 중요 맥락의 변화에 따른 적응의 결과를 조화의 적절성 측면에서 연구하며, 또 조화의 적절성을 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2. 결 론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기질 유형에 따라 4세와 5세 아동은 사회적 관심과 참여 능력 및 사회적 능력 전체에서, 6세 아동은 사회적 관심과 참여의 능력에서 차이를 보인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기질 유형이 조절형일 때 가장 높으며 소극적 조절형, 조절 결합형의 순서로 높다.

2)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4세와 5세 아동의 전체 사회적 능력과 6세 아동의 사회적 협동 능력은 차이가 있다. 온정적인 양육태도 유형의 아동은 통제적 양육유형의 아동보다 사회적 능력이 높다.

3) 4세·5세 아동과 동일 연령의 남아에서 사회적 협동 능력은 아동의 기질 유형과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의 상호작용에 의해 차이를 보인다. 조절형의 아동은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으나 조절 결합형 아동은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태도 유형에서는 능력이 가장 높지만 통제적 양육유형에서는 능력이 가장 낮다. 반면 소극적 조절형의 아동은 온정적 양육유형에서는 능력이 가장 낮지만 통제적 양육유형에서는 가장 높은 능력을 갖는다.

참 고 문 헌

- 고홍화, 김병선. (1992). SPSS/PC+를 이용한 자료처리 방법. 성원사.
- 김정민. (1992). 청소년기 기질 적합성이 사회적 능력감 및 사회적 관계의 지각 그리고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은숙. (1984). 아동의 기질과 인기도 및 양육태도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천희영. (1991). 아동용 기질 측정도구의 개발연구. 아동학회지, 12(2), 78-93.
- \_\_\_\_\_. (1992).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_\_\_\_\_. (1993).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 아동연구, 제2집, 19-31.
- 최영희. (1990). 아동의 기질이 모자 상호작용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Bates, J. E. (1987). Temperament in infancy. In J. D. 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New York: Wiley.
- Bates, J. E. (1990). Conceptual and empirical linkages between temperament and behavior problems: A commentary on the Sanson, Prior, and Kyrois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36(2), 193-199.
- Belsky, J., Lerner, R. M., & Spanier, G. B. (1984). The child in the family. New York: Random House.
- Belsky, J., Robins, E., & Gamble, W. (1984). The determinents of parental competence: Toward a contextual theory. In M. Lewis(Ed.), Beyond the dyad. New York: Plenum.
- Buss, A. H., & Plomin, R. (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Wiley.
- \_\_\_\_\_. (1986). The EAS approach to temperament. In R. Plomin & J. Dunn (Eds.), The study of temperament: Changes, continuities and challenges. Hillsdale, NJ: Erlbaum.
- Campos, J. J., Barret, K. C., Lamb, M. E., Goldsmith, H. H., & Stenberg, C. (1983).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P. H. Mussen(Series Ed.), and M. M. Haith & J. J. Campos(Vol.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II: Infancy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Wiley.
- Cameron, J. R. (1977). Parent treatment, children's temperament and risk of childhood behavioral problems: 1.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children's temperament over tim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7, 568-576.
- Carey, W. B. (1986). Clinical interactions of temperament: Transitions from infancy to childhood. In R. Plomin & J. Dunn(Eds.), The study of temperament: Changes, continuities and chal-



- lenges. Hillsdale, NJ: Erlbaum.
- Denham, S. A., Renwick, S. M., & Holt, R. W. (1991). Working and playing together: Prediction of preschool social-emotional competence from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2, 242-249.
- Goldsmith, H. H., & Gottesman, I. I. (1981). Origins of variation in behavioral style: A longitudinal study of temperament in young twins. Child Development, 52, 91-103.
- Goldsmith, H. H., & Rieser-Danner, L. A., & Briggs, S. (1991). Evaluating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emperament questionnaire for preschooler, toddlers, and infant. Developmental Psychology, 27(40), 566-579.
- Hartup, W. W. (1989). Social relation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American Psychologist, 44(2), 120-126.
- Hooker, K., Nesselroade, D. W., J. R. Nesselroade, & Lerner, R. M. (1987). The structure of intraindividual in the context of mother-child dyads: P-technique factor analysis of short term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3), 332-346.
- Krasnor, L. R., & Rubin, K. H. (1983). Preschool social problem solving: Attempts and outcome in naturalistic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4, 1545-1558.
- Lamb, M. E., Hwang, C. P., Brookstein, F. L., Broberg, A., Hult, G., & Flodi, M. (1988). Determinants of social competence in Swedish preschool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58-70.
- Lerner, J. V. (1983). The role of temperament in psychosocial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A test of a "goodness of fit" model.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3, 149-157.
- \_\_\_\_\_. (1984) The import of temperament for psychosocial functioning: Tests of a goodness of fit. Merrill-Palmer Quarterly, 30(2), 177-188.
- Lerner, J. V., & Galambos, N. L. (1988). The infl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across the life. In A. E. Gottfried & A. W. Gottfried(Eds.),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 New York: Plenum.
- Lerner, R. M. (1986). Concepts and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New York: Random House.
- Lerner, R. M. (1990). Plasticity, person-context relations, and cognitive training in the aged years: A developmental contextu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26(6), 911-915.
- Lerner, R. M. & Busch-Rossnagel, N. A. (1981). Individuals as producers of their development: Conceptual and empirical bases. In R. M. Lerner, & N. A. Busch-Rossnagel (Eds.), Individuals as producers of their development:

- A life-span perspective. New York: Academic Press.
- Lerner, R. M., Lerner, J. V., Windle, M., Hooker, K., Lorenz, K., & East, P. L. (1986). Child and adolescents in their contexts: Test of a goodness of fit model. In R. Plomin & J. Dunn (Eds.), The study of temperament: Changes, continuities and challenges. Hillsdale, NJ: Erlbaum.
- McCall, R. B. (1990). Infant research: Individual differences. Merrill-Palmer Quarterly, 36(1), 141-158.
- O'Malley, J. M. (1977).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23, 29-44.
- Palermo, M. E. (1982). Child temperament and contextual demands: A test of the goodness of fit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Pettit, G. E. & Bates, J. E. (1989). Family interaction pattern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from infancy to 4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413-420.
- Plomin, R. (1986). Introduction. In R. Plomin & J. Dunn(Eds.), The study of temperament: Changes, continuities and challenges. Hillsdale, NJ: Erlbaum.
- Priors, M., Sanson, A., Carroll, R., & Oberklaid, F. (1989). Social class differences in temperament ratings by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35(2), 239-248.
- Sanson, A., Prior, M., & Kyrois, M. (1990). contamination of measures in temperament research. Merrill-Palmer Quarterly, 36(2), 179-192.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 Thomas, A., Chess, S., Birch, H., Hertzog, M., & Korn, S. (1963). Behavioral individuality in early childhood.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Walters, E., & Sroufe, L. A. (1983). Social competence as a developmental construct. Developmental Review, 3, 79-97.
- White, R. W.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 297-333.
- Windle, M. Hooker, K., Lerner, K. East, P. L., J. V. Lerner, & Lerner, R. M. (1986). Temperament, perceived competence, and depression in early and late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3), 384-392.